

# 주간기도정보

2025. 2. 25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반성경적 사상들 속에서 다음세대 보호해야”

‘다음세대를 이음세대로’ 주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 열려



‘2025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가 1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담임 길요나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연합기도회는 한국교회다음세대 지킴이연합(공동대표 이재훈·한기채·고명진 목사, 이하 한다연)이 주최했다. 목회자, 교사, 소그룹 리더 등 가르치는 사역자와 평신도 리더들을 위한 특별집회로 마련됐다.

‘다음세대를 이음세대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기도회는, 다음세대가 성경적 가치를 깨닫고 능동적으로 신앙을 전수하는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로서 준비하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이날 기도회에선 먼저, 길요나 목사가 환영사를 전했다. 길 목사는 “우리가 잠시도 잊어선 안 되는 중요한 주제는 바로 ‘다음세대’이다. 1년을 살려면 곡식을 심고, 10년을 살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살려면 사람을 심으라고 했다. 그만큼 다음세대가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교육개혁이 대한민국이 살길이다’라는 주제로 강연한 이재훈 목사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산, 지방소멸, 국가 경쟁력 감소 등의 문제는 결국 교육 문제로 귀결된다”며 “현재의 문제들은 지난 50년간의 평준화 교육 부작용을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단순한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근본적인 토대를 무너뜨리는 진화론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노희성 소장(에스티칭연구소)은 “만약 우리에게 창세기가 없다면, 영원한 해결책이 왜 필요하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교과서가 전달하는 생물관, 인간관, 우주관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화론은 사물 개념을 바꾼다”며 “그 결과 창조로 시작한 성경 역사는 거짓이 되며, 인류의 첫 조상은 아담이 아니며, 죽음은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들어온 게 아니며, 인류 역사는 계획과 목적 없이 진화하며, 인류가 순종해야 할 절대 기준은 없게 된다”며 “기독교 신앙의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한다”며 “모든 교회가 기초 재건에 사투를 벌여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성교육의 흐름과 효과적인 대처’라는 주제로 강연한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는 “아이들을 성적 방종과 문란, 성애화로 치닫게 만드는 도서, 청소년 성관계 및 혼외 성관계를 부추겨 자살 충동과 우울증을 불러일으키는 도서, 아이들을 비윤리적이고 패륜적인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도서는 청소년의 몸과 마음에 심각한 독극물로 작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다.

아울러 “칼과 총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며 “잘못된 성교육 책, 외설적이고 유해한 책, 인생의 방향성을 완전히 그릇된 방향으로 치우치게 만들 수 있는 책이 바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청산가리와 같은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전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요한 일서 4:4)**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신명기 6:1-2)**

하나님, 반성경적이고 세속적이며 사탄적인 가르침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소리 없이 다음세대의 가치관과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행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일진대 세상 교육에 자녀들을 내어 맡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 세상과 타협했던 자리에서 돌아서서 주의 말씀을 따르며 다음세대를 진리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사투를 벌이는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을 알고 담대히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순종하는 예수교회 되게 하소서.

## 2. 북한을 위한 기도

###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 북, 이산가족면회소 철거 중...정부 “유감, 즉각 중단해야”

남한 인접 지역을 ‘국경지대’로 선포



북한이 남북 화해의 상징이자 금강산 관광지구 내 마지막 우리 정부 시설인 이산가족면회소 철거를 시작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이산가족 상시 상봉의 염원을 담고 있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철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남북이 합의하여 설치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음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러한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 국제사

회와의 협력 등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면회소 철거 동향은 작년 연말부터 포착됐다고 한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10월 금강산을 방문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짝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본격적인 철거 작업에 나섰다.

현대아산 등 민간이 소유한 호텔과 골프장, 관광시설 등에 이어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이산가족면회소까지 철거가 이뤄지면 금강산의 주요 남측 시설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 이산가족면회소는 2003년 11월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2005년 8월31일 착공, 총 550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12층으로 2008년 7월 완공됐다.

2009년 9월 추석 계기 이산가족 단체상봉 행사를 개최해 처음으로 가동된 이후 2010년 10월, 2014년 2월, 2015년 10월, 2018년 8월 총 5차례 이산가족 상봉에 사용됐다.

한편, 최근 북한 당국이 남한과 맞닿은 인접 지역을 새 ‘국경지대’로 선포해 통제를 강화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당에서 남한과 맞닿은 전역 지대를 ‘국경지대’로 선포했다. 북 강원도와 개성시, 황해남도도 이제부터 중국과 러시아와 인접한 국경지역과 같은 특별 통제구역이 됐다.

이에 따른 모든 법적, 행정 절차도 변경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동 통제로 생계는 더욱 타격을 입게 되었다. 국경지대는 여행증명서 외에 승인번호를 발급받아야 다닐 수 있다. 발급을 위해서는 총 5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급 기한도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분단 80년 동안 남한을 ‘우린 하나의 겨레’ 반드시 통일해야 할 ‘한 민족’이라던 당국이 갑자기 두 국가론을 내놓았다”면서 “하지만 반만년을 한 민족으로 살아온 남북이 외국이 될 수 없다는 게 주민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출처: 연합뉴스, 자유아시아방송 종합).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에베소서 2:15-16,18)**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잠언 8:17,34-35)**

하나님,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의 일방적인 철거와 남한과 맞닿은 인접 지역을 국경지대로 선포해 남북 간의 교류를 단절하고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북한을 의탁드립니다. 분단의 아픔이 남과 북에 여전히 깊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인 민족을 둘로 나누려는 김정은 정권은 꾸짖으시고 탐심과 정욕에 쉬이 변하는 부패한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과 화평할 수 없는 죄인 된 우릴 위해 완전한 선을 행하신 십자가 사랑을 이 땅에 계시하사 우리 마음 문 곁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모두가 만나게 하소서. 그래서 여호와께 생명과 은총을 입은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한 성령 안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살게 하옵소서.

###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문제 심각…“교회가 버팀목 돼야”**  
 의료·복지 등 필수 서비스서 배제, 교회 돌봄 역할 필요



최근 이주민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돌봄 사역에 앞장서 온 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부모를 따라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부모의 체류 자격 상실이나 난민 신청 실패 등의 이유로 법적 체류 자격을 갖지 못한 아이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출생과 동시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법 체류자’가 되며, 의료와 복지 등 필수적인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된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지역 체류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거버넌스 구축 및 실행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81.8%가 미등록 이주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공공서비스로는 치안 서비스(86.9%), 보육 및 교육(75.9%), 건강 및 의료(75.5%), 생활 지원 서비스(73.4%) 등이 꼽혔다. 그러나 이들을 보호할 법적 제도는 여전히 부족하다. 설문 응답자의 75.9%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법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더 큰 문제는 6-7년 이상 한국에서 머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한시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했던 법무부의 구제 대책이 다음 달 31일 종료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제 대책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외국인등록번호 없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만큼, 현재로서는 아이들의 돌봄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곳이 없는 실정이다. 일부 지역 교회들은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해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의료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생활필수품 제공 등의 활동을 펼치며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신상록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이사장은 “미등록 이주아동 문제는 이주민 정책을 넘어 인권과 복지의 문제로 직결된다”면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이들은 계속해서 법적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교회가 먼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아이들을 돕는 데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종합).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욕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마태복음 25:38-40)**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신명기 31:12)**

하나님,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주민들을 외면했던 우리의 실상을 인정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법적 제도가 미흡하여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정부의 관심이 시급한 이때, 주의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이 문자에 그치지 않게 하사 이주민들과 자녀들을 돕고 섬기게 해주십시오. 민족들을 모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곳으로 인도하신 주의 계획을 믿사오니 무엇보다 저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주민 다음세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회복되어 열방 가운데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